

선청어문(先淸語文)의 국어교육자, 난대(蘭臺) 이응백(李應百) 선생

민현식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I. 난대(蘭臺)의 생애

난대(蘭臺) 이응백(李應百) 선생은 국어교육계의 큰 스승으로서 국어교육계에 남기신 자취가 은은하고 거대하다. 제자들의 글에서는 ‘만인의 큰형(김상준)’, ‘탁월한 천품을 타고나신 천생적 교육자요 사명적 인간인 스승(이명권)’, ‘교사의 신언서판(身言書判)을 강조한 스승(유광렬)’, ‘국어교육의 산 역사(윤의순)’, ‘출천(出天)의 스승(김봉균)’, ‘그립고 그리운 선생님(이주행)’, ‘평생 정도를 지키셨던 분(김유중)’ 등으로 추모된다.

1923년 4월 19일에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덕천리에서 상화(相和) 공과 양주(楊州) 윤씨(尹氏)의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나 2010년 3월 29일 새벽 4시 40분에 향년 87세를 일기로 영면하였다. 어려서 서당을 다니며 한문과 일어를 익혔고 고소설, 신소설을 두루 읽었다. 파주 적성(積城) 공립소학교 졸업(1939), 경성사범학교 예과 5년 수료(1944) 후 본과 2년 때 광복을 맞았다. 경성제대, 경성공업전문과 함께 3대 명문인 경성사범은 100명 정원에 70명은 일본인, 30명은 조선인으로 그 30명에 전국 수재들이 뽑혔다. 경성사범이 국립서울대로 개편된 후 국어과를 1949년 7월에 졸업하였다.

졸업 후 서울중학교, 서울사대부고, 이화여대를 거쳐 1957년 4월부터

1988년 8월 정년까지 서울대 국어교육과에서 국어교육의 사표(師表)로서 학문 정립에 힘썼다. 일제하 교육과 미군정 교수요목기, 1~4차 교육과정기 까지 국어교육의 산증인이요 역사이었고, 국어심의회 표준어 심의위원으로서 ‘표준어 규정’(1988) 해설 집필을 하는 등 국어 규범 확립에 기여하였다. 바른 국어교육이 바른 생각을 하는 국민을 길러낸다는 철학으로 먼저 어문생활부터 깨끗해야 한다는 ‘선청어문(先淸語文)’의 정신으로 살아온 삶은 오늘의 국어교육자들에게 일깨우는 바가 크다.

Ⅱ.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확립

1955년 창립해 큰 숲으로 일군 ‘한국어교육학회’는 《국어교육》 132호(2010)를 난대 추모 특집호로 꾸며 보은하였는데 거기서 필자가 밝힌 난대의 학문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¹⁾

(1) 규범문법과 어문규범 연구

초기에는 국어학 연구를 기반으로 규범문법 확립에 힘썼다. 40대 초에 낸 첫 교과서가 16종 교과서 중의 하나인 《중학 문법》(남광우·이응백·유창돈 공저, 1966)이었고, 1979년에는 5종 문법 중 《고교 문법》(이응백·안병희 공저, 1979)을 저술하였다. 그리고 150여 편의 학술논문은 어문규범 제정, 어휘교육, 한자교육 분야에 기여하였다.

규범에서는 표기법과 표준어 연구에 기여하여 《한글 맞춤법 사전》(1961)을 냈고 그해부터 국어심의회 위원으로, 1970년부터는 ‘국어 조사 연구위원회’의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1988년에 공표된 ‘표준어 규정’ 제정

1)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국어교육학을 위하여: 국어교육 학문 정립의 선구자 난대 이응백 선생을 기리며”(《국어교육》 132호, 2010)에 난대 선생의 업적을 정리한 바 있다.

에 관여하였다. 파주 출신의 표준어 구사자로서 언어생활에서도 말씨, 발음, 태도에서 표준어 사용의 모범을 보였다. 표준발음사전과 발음 교육 자료 발간, 교사와 방송인의 발음 교육, 낭독 교육에 앞장서고 학회장 시절에는 전국국어낭독대회를 주관하는 등 표준어 교육에 힘썼다.

첫 논문은 ‘언어와 도의’(서울 사대 교육회 2호)로 국어교육에서 언어예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언어예절 연구는 표준화법 연구로 이어져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효과적인 화법의 비결》(이주행 공저, 1992)로 나온다. 국어순화 영역에서도 여러 논문을 발표하고 퇴임 후인 1990년에도 문교부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장을 맡아 일생 국어 규범 확립에 힘썼다.

(2) 국어교육학과 국어교육사의 학문적 정립

1957년 서울대 교수로 부임한 이래 문교부 교수요목 제정심의회 위원, 국정교과용 도서 편찬심의회 위원 등 국어과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과 개발에 관여하였다. 《고전, 작문, 문법, 한문》 등의 교과서 저자로도 학문적 깊이와 넓이를 보여 준다.

국어교육 개론서로 《국어교육》(1963), 《국어과교육론》(1973), 《국어과교육》(1975)을 공저로 냈고, 현장 지침서 《국어과 교육실습의 계획과 실천자료》(1981)를 냈으며, 제자들도 고회를 기려 《광복 후의 국어교육》(1992)을 내어 국어교육사를 정리하였다.

국어교육의 전통을 증시해 한문교육을 국어교육에 계승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선인들의 한자 학습, 서사(書寫) 지도, 선인들의 독서와 작문 교육의 전통을 밝히는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국어교육사연구》(1975), 《속국어교육사연구》(1988)를 내놓았다. 《국어학사》(이기백 공저, 1987)도 내어 국어학사의 토대 위에 국어교육사 연구를 하였다.

(3) 어휘교육과 계량언어학적 어휘 연구

《국어교육》 2호에 실린 ‘국어과 학습에 있어서의 단어 지도 문제’(1960)에서는 단순 낱말 풀이 지도식 교육을 비판하고 단어 뜻풀이를 넘어 문맥 속에서 문장 전체 의미를 파악하고 글 전체의 주제 파악에 이르도록 지도하는 문맥 기반 의미론적 어휘 지도를 제안하였다.

이 논문에서 ‘이해 어휘, 표현 어휘’의 개념을 제시하고 개인의 어휘 능력은 개인이 구사하는 어휘의 ‘양(量), 질(質), 영역(領域)’이라는 3차원에 걸쳐 나타난다고 한다. ‘양’은 어휘의 수효이고, ‘질’은 어휘의 심도와 어감이며, ‘영역’은 방면과 범위를 가리킨다.

작문 능력의 발달을 위해 이해 어휘가 표현 어휘로 전환되도록 때로는 어휘를 외우게 하고 짧은 문장 짓기를 통해 체득시켜야 하며, 국어 시간에 단어 뜻풀이에 매달려 시간을 보내는 것은 큰 폐단으로 단어 연습은 집에서 미리 해오고 교실에서는 난해어 중심으로 의미 파악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학교 국어 교과서 편찬을 위한 학습용 기본어휘 설정에 관한 연구’(1969)는 어휘교육의 기초 연구 보고서로 이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 《국어교육》 18호의 ‘국민학교 학습용 기본어휘’(1972)이다. 이 논문은 학습용 기본어휘를 통계언어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으로 문교부의 《우리말에 쓰인 글자 짓기 조사》(1955), 《우리말 말수 사용의 짓기 조사》(1956) 이후로 대규모 어휘 조사를 한 것이다. ‘학습용 기본어휘’를 ‘기능적인 어휘, 가치 획득에 필요한, 효과적인 어휘’라야 한다고 정의한 후, 그 조건을 ‘①사용도가 높은 어휘, ②사용 범위가 넓은 어휘, ③조어력이 높은 어휘, ④기초적인 어휘’ 등 네 가지로 들었다.

학습용 기본어휘는 각 교과 학습에 필요한 어휘로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로 나누어 성인 작품, 어린이 신문·잡지, 교과서, 어린이 작품에서 수집하였

고 어린이 대화도 녹취하였다. 총 329,123어[이어수(異語數) 17,335어(단, 고유명사 제외)]가 수집되었다.

어린이 대화는 도심, 변두리의 6개교 1~6학년 어린이들이 등·하교, 운동장에서 놀 때의 대화를 10분씩 녹취 및 전사하여 음성언어 조사의 효시를 보인다. 조사(助詞) 수효 77,638어[이어수(異語數) 231어]를 빼면 연어휘수(延語彙數) 총계는 251,485어[이어수(異語數) 17,104어]로 평균 빈도 10 이상의 어휘는 2,713어이며 최종적으로 제시한 이해 어휘는 147,733어(83.8%), 사용 어휘는 28,540어(16.2%)로 이해 어휘와 사용 어휘의 총계는 176,273개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이해 어휘는 사용 어휘의 5.2배이다.

이 연구에서 한자어 부분만 따로 분석, 연구한 것이 ‘초등학교 학습용 기본어휘의 한자 연구’(《어문연구》 7·8호, 1975)이다. 이 논문에서는 기본 어휘 목록을 조사한 결과 799자의 한자를 추출하였고 이를 1~3급과 급외(級外)의 네 등급으로 했다.

‘국민학교 입문기 학습용 기본어휘 조사 연구’(《국어교육》 32호, 1978)는 1977년에 당시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와 서울·경기 지역 9개교 1학년(6~7세)과 미취학(5~6세) 어린이들의 대화를 녹취하여 초등학교 입문기 어린이들의 어휘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연어휘수(延語彙數)는 15,130어, 이어수(異語數)는 2,280어로 나왔다.

입문기 어휘 연구로는 ‘한글 구조에 따른 입문기 문자 지도’(《어문연구》 15·16호, 1977)가 있다. 진주 지방에서 문맹자가 중학 신입생의 11.9%라는 보고가 있어서 문맹자를 예방하려면 입문기 아동에게 문장식(sentence method), 단어식(word method) 방법이나 시각어휘(sight word: 단어 전체를 한눈에 덩어리로 익히기) 방법보다는 한글 음절표를 활용한 문자 지도를 하라고 주장하였다. 한글은 음소문자 겸 음절문자로 운용되므로 《훈몽자회》의 전통처럼 ‘가가거겨...’ 식의 기본음절표를 국어 교과서와 교실 벽에 붙여서 입문기 학생들이 익히도록 하고 낯선 단어도 음절 분해를 통해 지도하라는

것이다. 현대 국어교육에서 이것을 지도하지 않고 서구의 문장식, 단어식 낱말 지도를 하여 문맹자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인섭·김승렬 교수와의 공저인 ‘국민학교 아동의 어휘력 조사 연구: 저·중·고 학년별 표준 어휘 목록의 작성’(《국어교육》 42호, 1982)은 ‘국민학교 학습용 기본어휘’(1972)와 ‘국민학교 입문기 학습용 기본어휘 조사 연구’(1978)의 어휘에서 외래어와 비속어를 제외하고 새로 1982년에 개편된 국민학교 1~3학년 교과서의 어휘를 종합하여 교사 8인과 함께 취학 전 수준과 저·중·고급 수준의 총 4단계 수준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1수준(취학 전) 1,600어, 2수준(1·2학년) 4,389어, 3수준(3·4학년) 5,840어, 4수준(5·6학년) 3,176어, 총계 15,005어로 판정하였다.

이상의 계량언어학적 어휘 연구의 영향을 받아 제자 김광해 교수는 1980년대에 유의어·반의어 사전을 내놓는 등 어휘론 분야에서 창의적 연구를 보였고 그 유업은 ‘(주)낱말(natmal.com)’을 통해 결실을 맺고 있으니 ‘기사 기제(其師其弟)’, 곧 그 스승에 그 제자라 하겠다.

어휘력 확장법도 연구하여 ‘사전 속에 잠자는 가용(可用) 국어 어휘’(《국어교육》 30호, 1977), ‘속(續) 사전 속에 잠자는 가용 국어 어휘’(《국어교육》 67·68호, 1989)를 냈다. 전자는 한글학회의 《우리말큰사전》에서 1,319어를 수집했는데, 이 중 ‘가두리(물건 가에로 돌린 언저리)’는 ‘가두리양식장’으로 잘 쓰인다. ‘까딱수(바둑, 장기 따위에 요행을 바라는 얇은 수), 갈매(질은 초록빛), 나비잠(아기가 두 팔을 머리 위로 벌리고 자는 잠)’ 등도 되살릴 만하다. 후자는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민중서림)의 어휘 중에 1,192어를 소개해 ‘노루꼬리(몹시 짧은 것의 비유), 눈빔(남의 눈에 들게 걸어로 꾸미는 일), 도르리(음식을 돌려가며 제각기 내는 일)’ 등도 쓰일 만하다.

고문헌에서 잠자는 옛말도 탐색해 ‘두시언해에 짓든 되살릴 말들’을 1984년에 신설된 ‘국어연구소’의 기관지 《국어생활》에 다섯 번(2·3·4·5·11호, 1985~1987), 《국어교육》 73호(1991)와 77호(1992)에 두 번 더

계재해 ‘잡들다(붙들다, 부추기다), 서의ㅎ다(쓸쓸하다), 슷그리다(두려워하다)’ 등을 소개하였다. 이 노력은 《아름다운 우리말을 찾아서》(2001), 《사전 속에 잠자는 보배로운 우리말》(2007)로 나왔다.

(4) 한자교육 연구

우리나라에서는, 1965년 2월까지 국민학교 교과서에 괄호 한자를 병기하였고 1969년까지 4학년부터 200자씩 600자를 노출 혼용하였다가 1970년부터 모든 한자를 제거하였다. 그 후 반대 여론으로 1975년부터 국어, 국사만 중학교 교과서부터 괄호 한자를 넣었다. 결국 초등학교 국어과에서 한자교육을 정규교육으로 제공하지 않게 되자 남광우 박사와 함께 한국어문교육연구회를 만들고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역설하였다.

한자 연구 논문과 논설은 《어문연구》에 50여 편이나 실렸는데 첫 게재는 ‘현대 인명·지명에 쓰인 한자 연구: 기초 한자와 관련해서’(《어문연구》 4호, 1974)이다. 고유명사의 경우 ‘노령, 재령’이라는 지명을 한글로만 쓰면 ‘노령(蘆嶺), 재령(載寧: 재녕>재령)’의 뜻이 구분되지 못한다. 이 연구는 1970년판 ‘전화번호부’의 인명과 1963년판 ‘지방행정구역편람’의 지명을 조사해 문교부 제정 교육용 한자 1,800자가 얼마나 쓰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두 문헌에 쓰인 한자는 3,039자인데 교육용 한자는 1,348자(44.3%)에 불과해 교육용 한자로는 인명과 지명의 반도 못 읽는다. 인명과 지명에 공통으로 쓰인 한자가 888자이고 인명에만 쓰인 것이 212자, 지명에만 쓰인 것이 248자에 그쳤다. 또 교육용 한자 중 인명과 지명에 쓰이지 않은 한자가 452자로 교육용 한자의 1/4이다. 교육용 한자가 아니면서 인명과 지명에 쓰인 한자는 1,691자나 되는데 빈도 높은 90자는 최우선적으로 익혀야 할 한자들이라고 한다. 한자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는 《자료를 통해 본 한자, 한자어의 실태와 그 교육》(1989)에 집대성되어 있다.

한자교육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첫째, 어휘 확장력에 유용하다. ‘農’ 자를 통해 ‘농가, 농민, 농사, 빈농, 부농’을 확장하고, ‘家’ 자를 통해 ‘가정, 가장, 친가, 외가, 초가, 농가’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 둘째, 어휘 추리력과 철학적 사고에 좋다. ‘劇’ 자를 통해 호랑이(虎)와 멧돼지(豕)가 송곳니를 칼(刀→刂)같이 세우고 싸우니 얼마나 극적인가. 또한 ‘學校’의 ‘學’에 ‘子’ 자가 들어 있어 학생들은 아들과 같다는 것이고, ‘校’에 ‘父’ 자가 들어 있어 스승은 아버지와 같다고 유추하여 결국 선생님은 아버지와 같고 우리는 선생님의 아들과 같다고 유추함은 놀라운 가르침을 준다. 셋째, 인격 형성에 유용하다. ‘孝’ 자는 노인을 자식이 모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고, ‘親’ 자는 나무에 서서 자식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 바라본다는 뜻을 지니며, ‘信’ 자는 두 사람 사이에 말의 신용이 있어야 하고, ‘仁’ 자는 두 사람이 어질어야 한다는 것이며, ‘恕’ 자는 내 마음(心)같이(如) 헤아려 용서해야 함을 뜻하고, ‘怒’ 자는 내 마음이 노예처럼 묶인 상태일 때 성을 내게 되는 것이라는 교훈을 준다.

한자는 초등 1학년부터 가르쳐야 하며 중학부터 한문 과목으로 가르치면 학습 부담을 주므로 초등학교에서부터 익혀야 한다는 것이다. 한글 전용으로 지적 저하를 가져옴도 개탄하고 전문어를 과도하게 순화하여 오히려 독해를 방해하는 잘못된 국어순화도 비판한다.

‘국민학교 각 과 교육과 한자’(《어문연구》 53호, 1987)에서는 각 과목을 통한 한자교육의 방향도 제시하였다. ‘농도, 화농, 농아, 농로’를 한글로는 ‘농’이 구분되지 않으나 ‘濃度, 化膿, 龔啞, 農路’처럼 한자로 적으면 의미 구분이 명료하므로 수많은 한자 개념어들을 각 과에서 한글로만 가르치면 무수한 ‘무의미 철자’를 기계적으로 외워 고역을 치르고 어휘력 및 학력 저하는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낭림산맥(狼林山脈)’도 ‘이리가 나오는 숲으로 이루어진 산줄기’로 이해하면 되는데 뜻도 모르고 ‘낭림산맥’이라는 소리만 외우듯이 인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를 외우면 문화적 교양도 쇠약해진다는 것이다. 한자가 배우기 어렵

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어려서부터 한자를 익혀 온 전통이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며 같은 또래의 중국, 일본 아동들이 한자를 잘 익혀 쓰고 있으므로 학습 부담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며, 우리는 하루아침이면 익힐 한글만 익히고 나서 한자 학습의 귀한 경험을 전 국민적으로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워야 한다면 어려워도 배워야 하는 것이며, 한자는 국어와 별도로 배워서도 안 되며 같이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여 국어와 한자교육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동아시아권에서 고립되지 않고 세계화하려면 한자교육이 국어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한자교육론은 《한자를 아는 것이 국력이다》(2004)에 종합되어 있다.

퇴임 후에는 한·중·일(韓中日) 공통상용한자 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자문화권내의 공통상용한자 검토’(《어문연구》 112호, 2001)와 같은 계량적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별세 3년 전에도 ‘한자문화권 내 공통상용한자 선정 연구 경위와 향후 과제’라는 논문을 발표해 한중일 이체자(異體字) 문제를 다루고 공통상용한자 목록을 제시하였으니 80대의 원로로서 왕성한 학구열로 계량언어학적 연구를 제시한 열정은 후학들의 귀감이 된다.

고교 한문 교과서는 물론 대중 한문 교양서로 《한중한문연원(韓中漢文淵源)》(2000)도 냈다. 월간 《한글+한자문화》에 이응백 칼럼을 통해 주옥 같은 글을 실었으며, 투병에 들어간 2009년 10월부터 별세 한 달 전 2010년 3월호까지 《한글+한자문화》에 ‘논어의 지혜’를 연재하였다.

우리의 어문정책은, 공공언어의 한글 전용하에서도 한자교육은 초등학교의 창의체험활동교육시간에, 중학교는 한문 선택과목을 통해 제공한다는 것인데 쟁점 사항은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정규화 문제이다. 국민 여론조사는 초등학교에서 한자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 70~80%로 나오므로 한글 전용교육의 정신을 살리면서 초등 국어과에서 어휘 연습관을 통해 몇백자 수준으로 국어 어휘교육 보조 차원에서 제공하면 한글 중심의 정책도 살고 국민의 한자 소양도 높이게 될 것이다.

Ⅲ. 신심(信心)과 시심(詩心)의 수필가, 시조 시인

늘 단정하며 깨끗하고 자애로운 이 시대 마지막 선비는 수필가요, 시조 시인으로 허다한 작품을 남겼다. 독실한 불교 신자로서 많은 보시를 하였고 자애로운 미소는 자비로운 신심(信心)의 발로라 하겠으니 ‘수필문학진흥회’ 회장 겸 잡지 《수필공원(隨筆公苑)》 대표로서 고전의 향기와 신심 가득한 수필을 남겼고, 시조 부흥 운동을 위해 ‘시조생활사’ 대표로서 시심 어린 작품을 남기며 잡지 《시조생활》을 펴냈다.

훌륭한 수필가로는 “깔끔한 서정 수필 작품으로 금아(琴兒) 피천득(皮千得) 선생의 수필이요, 소재의 어떠함을 가리지 않고 서정적이건 사회 비평적이건 간에 능란하게 처리해 내는 것은 김소운(金素雲)의 수필”이라고 두 분의 수필을 백미로 평가했다.

특히 수필에는 진한 가족애가 담겨 있으니 대학 4학년(26세) 때 소학교 은사의 중매로 은사 동창의 따님인 민영원(閔瑛媛) 여사를 만나 1949년 4월 창경궁 경춘전(景春殿)에서 혼례식을 올리고 9년 만에 외아드님을 얻고 두 손자를 얻었으니 가족 사랑을 그 무엇에 비교하랴.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나온 《가족문집: 제비》(1979)는 둘이 억센 비바람도 서로 견디고 의지하며 사이 좋게 보금자리를 꾸미는 제비를 본받자는 뜻에서 지은 이름으로, 이후 《부부해외여행문집: 여적(旅滴)》(1983)도 나왔다. 사모님께서 1993년 10월 65세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니 상배(喪配)의 아픔 속에서도 못다 한 사랑의 사부곡(思婦曲)을 1년 후 《아내 추모문집: 영원한 꽃의 향기》(1994)와 《속(續) 영원한 꽃의 향기》(1995)로 냈으며, 사모님의 아호 ‘혜순(慧舜)’을 딴 《세 번째 영원한 꽃의 향기: 혜순의 붓자취》(1996)를 냈고, 홀로 맞은 결혼 50주년에는 《네 번째 영원한 꽃의 향기: 난향 죽정(蘭香竹情)》(1998)을 냈다.

사부곡(思婦曲)

다시는 죽어도 님의 곁 안 떠나리
 이제는 죽어도 님과 함께 있으리
 그대 그림자 그대 따르듯
 나도 그대 그림자 되어
 죽어도 님의 곁 안 떠나리
 차라리 그대 그림자 되었던들
 이리도 그리운 마음 아니도 애달프련만

그 후에 《다섯 번째 영원한 꽃의 향기: 그리움의 사연들》(2003)도 나왔다. 그 외에도 수필집 《기다림》(1988), 《고향길》(1990), 《우리가 사는 길》(1999), 《묵은 것과 새것》(2008)이 나왔고, 퇴임 후에는 《제1 시조집: 인연》(1992), 《제2 시조집: 나들이》(2002), 《제3 시조집: 청(淸)과 음(陰)》(2008)을 별세 2년 전까지 냈으니 왕성한 글쓰기로 시심을 밝힌 선청어문(先淸語文)의 삶이 수도자의 삶과 같았다. 맥에는 1944년부터 쓰신 일기가 63권이나 되니 그 기록 정신은 언젠가 생활사 차원에서 훌륭한 연구 자료로 공개될 때가 있으리라. 신심과 시심의 글쓰기야말로 17년을 홀로 외유내강의 풍모를 잃지 않으시고 지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IV. 학회 활동과 사회 활동

국어교육 최초의 학술단체인 ‘한국어교육학회(전 한국국어교육연구회)’를 1955년에 주도적으로 창립하고 회장 취임 이래 정년퇴임 5년 후인 1993년까지 38년간 학회장으로 학회를 이끌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며 월례발표회를 지속해 왔다. 회장직의 장기 연임을 요즘에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는 한글학회 등에서도 원로 존중의 미덕으로 행해 왔다.

국어교육을 학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어국문학의 말석쯤으로 아는 세태 속에서 국어교육의 가시밭길을 성실히 일구고 학회와 학술지 《국어교육》을 최장수 학회지로 일구어 난항 가득한 큰 숲으로 만들었다. 그런 덕분에 국어교육학이 학문적 독자성을 인정받아 퇴임 직전에야 서울대와 교원대의 대학원에 국어교육 석사, 박사 과정이 생기게 되었다.

주시경 문하에서 ‘조선어학회’가 탄생하고 후학들에 의해 국어학이 성장했다면 국어교육은 난대 문하에서 ‘한국국어교육연구회’가 탄생하고 오늘날 ‘한국어교육학회’로 이어져 후학들에 의해 국어교육학이 학문적 정체성을 가지고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계량언어학적 연구를 가능케 한 꼼꼼하고 치밀한 성품의 난대는 행정 능력도 뛰어나 한국방송통신대학 초대 학장, ‘한국어문화’ 이사장, ‘전통문화 협의회’ 회장, ‘한국수필문학진흥회’ 회장, ‘중봉(重峯) 조헌(趙憲) 선생 기념 사업회’ 회장, 단군 숭모의 ‘현정회(顯正會)’ 회장 등을 역임하여 국학계의 원로로서 헌신하였다. 본관(本貫)이 전주(全州)로 정종대왕(定宗大王) 제4남 선성군(宣城君)의 16대손이라 전주이씨 대동종약원(全州李氏大同宗約院) 이사 및 선성군파 종친회장도 역임하였다. 평소 나라 사랑을 기반으로 한 국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강조하여 의로운 일을 현창(顯彰)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한자교육 주장도 한자교육이 국어교육이자 인간교육, 인격교육임을 강조하여 나라가 도의적, 인격적으로 발전하려면 초등학교에서부터 한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국민훈장 동백장(1982), 대한교육연합회 교육특별공로상(1987), 국민훈장 모란장(1988), 수필과 비평문학 대상(1998), 제2회 동송학술상(1998), 한국어문화 공로상(2009)을 수상하였고 2007년 10월에는 서울대 국어교육과 동문회가 첫 ‘자랑스러운 국어교육인’으로 선정했으며 2009년 5월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에서 국어교육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실천한 공로를 인정해 제1회 청관대상(淸冠大賞)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V. 고향 사랑, 제자 사랑

고향 파주에 대한 사랑도 각별하였다. 고향의 정서와 어릴 적 소년 시절의 꿈을 담아 적성종합고등학교(현 경기세무고등학교)의 교가를 작사하였고, 파주의 풍광을 담고 파주의 정신으로 통일을 염원하는 <파주의 노래>도 작사(김성태 작곡)하여 난대의 정신은 파주인의 가슴에 영원히 흐를 것이다. 가사에는 “내 고장 파주는 한국의 허리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조국의 역군 되세.”라는 구절이 나온다. 별세 한 달 전(2010. 2. 24.)에는 3,300여 권의 소장 도서를 파주 시립 중앙도서관에 기증하였다. 파주 지역신문인 《파주신문》에는 250여 회 넘게 《논어》를 중심으로 ‘어문수상(語文隨想)’을 연재하였다.

난대를 추모하는 제자들은 허다하다. 제자들에게는 교사로서 판서(板書)를 바르게 하라, 발음을 정확히 하라, 언어예절을 각별히 하라, 한글 어휘교육과 함께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시행하여 어문교육을 정상화하라고 역설하며 본을 보였다. 제자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동분서주하였다. 제자에게 사소한 일을 하나 시켜도 대가를 받드시 지불하여 제자를 함부로 부리는 일이 없었다. 흐트러짐 없이 온화하고 단아한 모습의 선비가 국어교육과에 계셨기에 그 제자들은 행복하였다. 퇴임 후 기탁 제정한 ‘난대 장학금’이 계속 유지되도록 기부해 왔고 별세 1년 전에도 한국어문회에서 수상한 공로상 수상금을 기탁해 난대의 학문 정신은 계속 후학들로 이어지고 있다.

난대의 삶은 전통 한문 국어교육의 튼튼한 기초 위에 국어학 연구로 시작하여 맞춤법, 표준어, 표준화법 규범 확립에 기여하고, 국어교육학의 초석을 놓았으며 특히 계량언어학적 방법으로 어휘교육, 한자교육, 국어교육사의 이론과 실재를 확립하고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론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국어교육, 한자교육 관련 학회를 창립하여 큰 숲을 이루고 각종 사회·봉사 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였으며 신심과 시심의 가족 사랑, 나라 사랑,

제자 사랑을 담은 주옥같은 수필과 시조를 남긴 선비로서 선청어문의 수도자적 삶을 보여 국어교육의 큰 스승으로 기억되고 있다. 난초의 받침대만으로도 족하다는 아호 ‘난대(蘭臺)’의 뜻 그대로 우리 말글과 제자와 조국을 위해 겸손하게 희생한 선비의 향기로운 삶이었다.